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구소련이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상공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었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큰 규모의 법인들도 등장하게 되었고 그 법인들에 투자하는 주주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인들 각자가 다른 기준으로 자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들이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세기에 들어 회계가 발전하게 되었다.

회계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회계의 기본은 구체적인 계정과목과 금액을 정하는 분개이다. 분개는 최소한 2개의 계정과목을 작성해야 하며, 차변의 모든 계정과목의 금액의 합과 대변의 모든 계정과목의 금액의 합은 일치해야 한다. 계정과목의 증가를 기준으로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계정과목과 금액을 함께 기입한다. 예를 들어, 내가 500원 어치의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면 [(차변) 비품 500 | (대변) 외상매입금 500]으로 작성한다.

자산의 항목 중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항목은 금융자산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제1109호 기준서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의 용어, 인식, 측정, 상각, 제거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기매매증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 'FVPL금융자산')으로, 매도가능증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 'FVOCI금융자산')으로,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하 'AC 금융자산')으로 명칭이 변화하였다. K-IFRS가 이 기준서를 2018년 12월 24일에 공표했기 때문에 2019년 감사 보고서에서 개정 전 용어와 개정 후 용어를 모두 혼용하는 회계법인이 많았다.

FVPL금융자산은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자산이다. FVPL금융자산은 평가손익, 처분손익 및 이자, 배당 등의 금융수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AC금융자산은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AC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이자수익만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두 금융자산 중간에 위치한 금융자산이 FVOCI금융자산이다. FVOCI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다. FVOCI금융자산은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으로 나뉜다. FVOCI채무상품의 경우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지만 처분손익과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반면에 FVOCI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 처분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배당수익은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그러나 평가손익의 경우 중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별도로 있다. 바로 기대신용손실인데 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은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연체일수가 30일을 넘어가는 자산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AC금융자산도 기대신용손실만큼의 가치 하락은 인식하며, FVOCI금융자산도 가치 하락분 중 기대신용손실만큼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FVPL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이미 기대신용손실이 단기매매의 매도가에 전부 반영되어 있다 판단하여 별도의 기대신용손실은 인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 금융자산 사이에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FVPL지분상품의 경우 취소불가능한 조건 하에 FVOCI지분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AC금융자산이나 FVOCI금융상품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시키기 위해 취소불가능한 조건 하에 FVPL금융자산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 후에는 변경된 금융상품의 조건을 모두 따른다.

문제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 ② 2019년 올해 감사보고서에는 개정 전 용어와 개정 후 용어를 혼용할 수 있었다.
- ③ 자산의 감소는 차변에 계정과목과 금액을 함께 작성한다.
- ④ 어떠한 금융자산도 다른 금융자산으로 변경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 ⑤ 금융자산은 목적에 따라 명칭이 분류되었다.

문제 2

다음 중 옳지 않은 분개를 고르시오.

<보기>  
 다음은 (주)서강의 금융자산 관련 항목이다.  
 기대신용손실조건 만족시 가치하락의 40%는 기대신용손실로 판단한다.

---

2019.01.01. FVPL채권상품을 10,000원에 현금으로 구입, 매년 말 이자 5000원 지급 조건, 3년 만기  
 2019.01.15 FVPL채권상품을 FVOCI채권상품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2019.02.01 AC금융자산을 2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 매달 말 이자 1000원 지급 조건  
 2019.02.05. FVOCI채권상품의 가치가 1,000원 하락  
 2019.02.07. FVPL지분상품을 30000원에 구입  
 2019.02.15 AC금융자산의 가치가 5,000원 하락  
 2019.03.15 AC금융자산의 가치가 3,000원 증가하여 시세가 18,000원이 됨  
 2019.03.15 FVOCI채권상품을 20000원에 판매, FVPL지분상품을 35000원에 판매 (모두 현금으로 수령)

- ① 2019.01.01 (차변) FVOCI채권상품 10000 | (대변) FVPL지분상품 10000
- ② 2019.02.05 (차변) 기타포괄손익 600 | (대변) FVOCI채권상품 1000  
기대신용손실 400
- ③ 2019.03.15 (차변) 기대신용손실 2000 | (대변) AC금융자산 2000
- ④ 2019.03.15 (차변) 현금 20000 | (대변) FVOCI채권상품 19000  
기타포괄손익 1000
- ⑤ 2019.03.15 (차변) 현금 35000 | (대변) FVPL지분상품 30000  
당기손익 5000